

글로벌 인재와 영어능력에 관한 담론적 실천과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이해*

신동일
(중앙대학교)

Shin, Dongil. (2018). Understanding discursive practice and neoliberal subjectivities of global talents and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e. *Journal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3), 349–380.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scursive practice and neoliberal subjectivities of global talents (human resource) and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e represented in the Korean newspaper reportages. Through Foucault's (2012, 2015) governmentality and subjectivities, this study illustrated how the rationalization and legitimation of global talent as a neoliberal subject were inextricably related to process of neoliberal knowledge and power production. Drawing on Dean's (2010) analytics of governmentality, this article traced the genealogy of the global talent discourse in *Chosunilbo*, *Dongailbo*, and *Kyunghyang Shinmun* newspapers by analyzing all the article texts between 1993 and 2016. The genealogy demonstrated the inextricable connection between market-driven rationalities, technologies of control and the (re)construction of global talents under neoliberal governmentality. Since early 2000s, it has been pointed that the complicated discursive practice on competition, neoliberal entrepreneurship, multiculturalism, transnationalism, and global citizenship was extended to reformulate the slippery subjectivities of global talents.

Keywords: global talent, global human resource, discourse analysis, Foucault,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subjectivities

1. 서론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로 국내 사회는 효율성과 경쟁을 부각시킨 신자유주의적 채구조화를 피할 수 없었으며 전통적으로 비시장에 속한 언어/교육 영역도 본격적으로 시장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156)

원리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합리적인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경제적 이익은 어디서든 극대화될 것으로 전제되었고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아, 자기계발의 담론은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김은준 2012, 김주환 2017, 박혜경 2010, 서동진 2009, 홍성현, 류용재 2013).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경쟁력’ 등의 언표가 유포되면서 신자유주의 체계는 국가와 공적 영역의 세계화 담론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적 영역의 자기계발 담론과 접합되었고 ‘글로벌 인재’라는 새롭고도 능동적인 주체(홍성현, 류용재 2013)를 출현시켰다. 글로벌 인재의 확보가 국가경제의 생존을 좌우하고, 기업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책임지고 양성하며, 심지어 창조적인 아이가 미래의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약속, 선언, 처방, 혹은 문제화의 텍스트는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 사회 전 영역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글로벌 인재의 주체성(subjectivities)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국정 지표와 무관하지 않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 그리고 위환금융위기와 함께 시작한 김대중 정부의 선진 인재육성방안으로부터 표상되었다(서동진 2009, 홍성현, 류용재 2013). 정부와 기업은 ‘국제 감각’,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과 같은 언표를 유포하면서 새로운 인재상을 구축했고(이종구, 천만봉 2013), 대학 역시 영어졸업인증제 등을 통해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화답했다(박수현, 신동일 2016, 2018). 다만 글로벌 인재가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 문헌을 찾아보기 힘들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전문성, 협상능력, 에티켓, 정직, 개성, 법치의식, 외국어 구사능력 등으로 나열(박소연, 송영수 2008)할 수는 있겠지만, 김가현과 신동일(2016)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내적 역량은 공적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획득되기 힘들고 평가 역시 쉽지 않다. 오히려 ‘글로벌 인재’라는 모호한 주체성으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호도되거나 과장되면서, 관련 분야로 진학과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시화시킬 수 있는 자격증, 시험점수 등에 의존하는 “스펙” 쌓기의 사회적 실천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홍성현과 류용재(2013)는 페어클로우(Fairclough)의 논점으로부터 글로벌 인재의 담론구성체를 계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고, 김가현과 신동일(2016)은 반 다이크(van Dijk)의 담론연구방법으로부터 글로벌 인재와 영어능력에 관한 언어구성물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물은 국내 학계에 거의 축적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주체의 탈중심화 작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점을 차용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인재라는 주체성 형성에 개입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미디어의 담론적 실천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글로벌 인재가 지식의 대상으로 포용되는 과정 중에, 언어능력, 언어학습, 언어시험(정책) 등이 테크놀로지로 구축되고 (예비)인재로 감당하는 행위가 신자유주의적 실천의 규격화로 유도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 기업, 학교가 글로벌 인재의 능력, 특성, 지향점을 구성할 때 미디어는 매개적 역할을 맡으면서 누군가의 텍스트를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담론적 가상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는 세계화 담론을

생성한 김영삼 정부부터 미디어가 유연하게 재구성한 글로벌 인재의 통치적 장치, 새로운 주체의 호명, 주체성의 특성을 신자유주의 기반의 담론적 질서로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통치성과 주체성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가 사유하는 주체를 강조했다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유한성과 선행성의 이중체로서의 인간을 개념화시켰다. 이에 반해 미셸 푸코는 권력, 지식, 담론의 관계망으로부터 구축된 주체성으로부터 인간사를 이해했다(Foucault, 1992). 주체의 지식은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되며, 담론적 개입을 통해 권력화된 지식이 유통되고 재생산된다. 그는 고고학, 계보학, 그리고 통치성의 원리로부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전제로 하는 주체 중심의 기존 철학과 거리를 두었으며, 특정한 시공의 역사 속에서 주체는 재현될 뿐이며 규율적 권력을 실행하는 전달자로 인식했다(강진웅 2014, 심세광 2011).

푸코의 후기 저술에서 발견되는 통치성(Foucault 2011, 2012, 2015) 논점은 어디서나 편재하는 과잉티콘의 규율적 권력 속성(Foucault 2003)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자유롭고 자립적인 개인’의 권력/주체 개념으로 등장한다. 통치성의 주체는 억압되고 배제되기 보다는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들이며 주권과 규율의 권력에 종속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지점에서 변화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생산적 권력이 허락된다. 18세기 이후의 자유주의, 생명정치를 정치적 합리성 관점으로부터 설명한 푸코는 근대 유럽국가가 전체 인구와 개별적 개인을 대상으로,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으로 삼고, 안전장치를 기술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계층, 전술 등의 총체인 통치적 실천체제를 주목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푸코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자들(Dean 2010, Rose 1998, 1999)에 의해 인용되고 분석되었으며 자유주의 통치의 ‘인구’는 지금 시대의 ‘능동적 시민’ 혹은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내면화시키는 다양한 ‘인적자본’ 주체로 대체되었고, 인구를 통치가능한 대상으로 다룬 정치경제학 역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창의성, 혁신, 팀워크, 코칭, 몰입, 자기실현 등의 윤리적 이상과 테크닉을 가르칠 경영학으로 바뀌었다(서동진 2014).

푸코의 통치성과 주체성 논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문헌을 통해 국내에서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동진(2009)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작동되는 통치성과 주체성을 설명했다. 노형일과 양은경(2017)은 2016년 촛불집회에 관한 미디어 담론을 통치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당시 자립적이고 규율적인 시민 주체의 형성과정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실천방식으로 이해

했다. 박혜경(2010)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주부가 가정 경영자, 혹은 주부 CEO로 어떻게 주체화되는지, 김주환(2017)은 국내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담론구성체로 이해하면서 사회적 기업가의 주체성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각각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로부터 설명했다. 도승연(2014, 2015)도 빈곤의 여성화 풍조를 주목하면서 농업 이주여성 노동자의 삶을 문제화하거나, 글로벌 푸드의 대항 담론으로 등장한 로컬 푸드의 소비 경향성을 푸코의 통치성 논점으로 다루기도 했다. 언어/교육 영역에서는 통치성과 주체성 기반의 연구문헌이 해외에서는 축적되어 있지만(Olssen, Codd and O'Neill, 2015, O'Neill 2016) 국내 학계는 관련 연구전통이 이체서야 등장하고 있다. 김은준(2012)은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책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간 주체를 다양한 담론 생산과 권력관계로부터 이해했고, 박수현과 신동일(2018), 신동일(2018)은 미디어가 참여해서 생산한 영어졸업인증제와 영어시험 담론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점으로부터 설명했다.

2.2 신자유주의와 언어능력

신자유주의는 효율성, 예측가능성, 기술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관료제 속성을 수용하면서도 노동의 유연성 전략을 통해 사회의 노동력을 재조직하고, 전체와 개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측정하면서 공공 영역을 시장 원리로 작동시키고 있다. 국가는 국제적인 압력과 점증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비시장 영역이었던 교육 등을 시장 원리로 전환시키는 등 새로운 통제 유형과 책무성 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정하는 중이다. Olssen, Codd, O'Neill(2015)이 주장한 것처럼 이와 같은 질서를 추동하는 힘은 신자유주의 통치성(Foucault 2011, 2012)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원리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

국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원리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세계화 정책과 1997년에 찾아온 외환금융위기로 부터 체계 구축의 정당성이 마련되었다(하연섭 2003).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들른 호주의 한 호텔에서 발표한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 자유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의 전환, 투자와 지구적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 자유화, 은행 경영 자율화, 외환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을 추진하도록 허락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열린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 다양화, 특성화, 정보화의 가치를 반영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약칭 5.31 교육개혁안을 집행할 수 있는 실천으로 유도되었다. 게다가 외환금융위기를 거치고 김대중 정부가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하연섭 2003) 국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재구조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Foucault(2012)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등장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인용하면서 심세광(2011)은 노동(“인간의 행동양식에 관한 과학”)이 경제 분석의 핵심적인 대

상이 되고, 노동력은 능력 자본(capital competence)으로 관념화되고, “인간 안에서” 구현된 ‘인적’ 자본은 노동자가 소유한 능력과 적성이며 이것이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되고 “노동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기업”(pp. 118-119)이 되어야 한다는 통치적 과정을 부연했다. 능력 자본은 생득적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에 교육은 인적 자본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면서 능력 자본을 양성시켜야 한다는 지식의 정당성은 통치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셈이다. 이처럼 교육을 비용 대비 효율적 투자의 영역으로 전환시킨 신자유주의의 인적자본론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면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생성시킬 것이라고 쉽사리 전제하고 낙관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바람직한 인적 자원은 교육을 통해 변형된 능동적 주체이며, 위험과 경쟁을 감수하더라도 시장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능력, 태도를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경제적 주체,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할 수 있다(서동진 2009).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영어능력도 이와 같은 경제적 분석의 대상으로, 인간 안에 구현된 ‘능력’ 자본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 누구나 시장원리를 작동시켜야 하는 입력-출력의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Bernstein, Hellmich, Katznelson, Shin, Vinall(2015)은 신자유주의가 제2언어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면서 언어나 (언어)문화가 전문적으로 가공된(technicized) 기술,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언어학습자는 기업가나 소비자의 자세를 갖게 되며, 글로벌 영어를 포함한 새로운 언어시장(linguistic market)이 경쟁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발굴해야 하는 인적 자본으로서의 영어능력은 유연화된 노동 환경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상능력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soft skill)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시대 풍조에 휩쓸려 언어에 관한 가치중립적, 비정치적, 비역사적, 보편적 관념의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Shin and Park 2016). 신자유주의적 인적 자본론은 개인을 탈정치화시키면서, ‘인간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입력-정보처리-저장-출력 기반의 인지적 언어능력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측정공학적으로 관리하고 교정하는 언어교육으로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언어사용과 학습 행위를 효율적으로,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수량화시키고, 통제하는 테크놀로지화 혹은 맥커뮤니케이션 합리주의(McCommunication)(Block 2002, Rizer 2003)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원리와 결합되면서 언어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전지구적으로 동질화시키고 있다(신동일 2013).

이처럼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인적 자원이 되는 언어능력을 시장의 원리로 의미화시키면서, 언어/교육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자유 경쟁, 소비자 선택, 품질보증, 성과지표의 경영관리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필요한 언어능력을 요구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때, 효율성, 예측 가능성, 계량화, 기술적 통제를 강조하는 관료적이면서도 획일적인 평가방식(신동일 2013, 2018)은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활동이 사용되는 이유는 상세하면서도 처방적인 투입-대비-산출을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전제되어 있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관계를 보다 의무-책임의 공적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Giannone

2016, Jankowski and Provezis 2014, Raaper 2016). 이와 같은 예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호언하지만 막상 토익(TOEIC)과 오픽(OPIC)과 같은 표준화된 영어시험으로 영어졸업인증제를 관행적으로 관리하는 대학의 사례로부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박수현, 신동일 2018).

언어능력, 언어사용, 언어교육이 시장 원리로 유연하게 의미화되지만 인적 자원을 실제로 선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평가활동은 유연성의 원리를 선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산출물을 요구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불편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학생이든 교사든 직원이든 동종(parallel form)의 표준화된 시험을 반복적으로 응시하게 하고 시험결과를 평가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이다.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에게 권한 위임을 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도 표준적인 평가가 사용되며 그런 중에 시장 원리가 다시 강조되기도 한다. Raaper(2016)은 시험 기반의 정책이 대학의 구성원(푸코식 용어로는 인구)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기제로 작동되며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합한 유순한 주체를 형성시킨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계화, 자유 경쟁, 소비자 선택, 유연한 정책의 운용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행위 주체들이 표준적 평가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관료적이고 처방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로 보자면 중단될 수 없는 명령 체계이다.

영어교육과 정책에 관한 담론적 사건을 신자유주의와 묶은 논점은 Park(2010, 2011), Piller와 Cho(2013) 등의 해외 연구문헌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Park(2011)은 신자유주의 언어시장에서 영어실력("good English")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성공 신화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구직 시장에서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식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보았다. 영어교육이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민자에게 경제 활동의 자유를 허락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글로벌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기존 담론들처럼 한국 사회의 영어 담론 역시 개인들을 자유케하고 경제적 성장마저 돕는다고 낙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인재 담론을 통치적 대상, 지식과 기술, 주체성의 논점으로부터 다루고, 특히 언어능력과 평가활동과도 결속시킨 선행문헌은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김가현과 신동일(2016)의 글로벌 인재와 언어능력 연구는 담론의 층위를 구분하여 탐색했지만 통치성의 관점에서부터 주체의 형성을 다루지 못했다. 홍성현과 류용재(2013) 연구는 신자유주의와 자기계발 담론으로 글로벌 인재 담론을 통시적으로 추적했지만 주체성의 핵심 덕목 중 하나인 (언어)능력, 태도, 지향점에 비중을 두지 못했다. 신동일(2018)은 영어학습자, 혹은 수험자 주체로 하여금 영어능력의 진리체계가 수용되면서, 시장, 공리, 기술 기반의 원리로부터 작동되는 영어시험 개발과 시행의 담론이 어떠한 통치적 장치의 배치로부터 구축되는지 분석했다. 다만 미디어에서 재현된 영어시험의 개발과 시행 사례를 계보적으로 검토하면서 평가적 국가(evaluative state) 원리가 신자유주의 통치의 테크놀로지로 결합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했지만 주체성의 논점

은 충분히 전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디어 담론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글로벌 인재 주체를 추적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게재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기사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이용했다. 다른 신문매체도 글로벌 인재 텍스트를 다루었지만, 서로 중복된 내용도 많았기에 본 연구에서 선정된 자료만으로도 글로벌 인재의 의미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료의 수집 시기는 세계화가 국정 지표가 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로 제한했다. 기사는 각각 조선일보 아카이브(archive.chosun.com), 동아일보 아카이브(www.donga.com/pdf/archive),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했다. 검색 키워드로 ‘글로벌 인재’,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 인재’, ‘글로벌 기업 영어’ 등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자료를 수집했으며, 기사 분포는 각 신문과 정부 기간별로 구분하여 아래 표 1에 정리했다.

표 1. 연구에서 사용한 글로벌 인재 기사의 분포

정부별 기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합계
김영삼 정부: 1993. 01-1998. 01	2	0	0	2
김대중 정부: 1998. 02-2003. 01	5	2	2	9
노무현 정부: 2003. 02-2008. 01	28	18	8	54
이명박 정부: 2008. 02-2013. 01	27	26	9	62
박근혜 정부: 2013. 01-2016. 08	14	4	4	22
총합	76	50	23	149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49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담론을 교육 영역에 적극적으로 접합한 조선일보(서덕희 2003, 2006)는 글로벌 인재에 관해서도 76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했고, 동아일보는 50건, 경향신문은 23건을 지면에 배치했다. 글로벌 인재 기사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62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신문 지면에 배치되었다. 그에 반해 세계화가 선언되고 선진인재육성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김영삼, 김대중 정부 기간에는 2건, 9건만 보도되었다.

각 정부 기간별로 수집된 신문 텍스트는 Dean(2010) 통치성 연구방법을 일부 참고하여 호명된 주체, 형성된 담론, 주체성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글로벌 인재가 다소 모호하고 자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누가 주체로 호명되는지 주목하기로 한다. 둘째는 글로벌

인재 담론을 구축하는 테크놀로지를 찾아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인재 주체는 어떠한 담론 전략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는가? 어떤 지식이 그러한 담론에 정당성을 제공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글로벌 인재를 대상화시킨 통치가 의존하고 있는 특정 지식, 전략, 절차, 도구, 장치(의 배치)를 논의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인재라는 주체성이 어떠한 (영어)능력, 역량,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는지, 미디어로부터 문제화되는 것, 새롭게 교정되거나 소유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 바람직한 글로벌 인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모아보면 글로벌 인재의 통치가 타자로부터, 혹은 스스로 자유롭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인재 담론을 생산하면서 얻는 권력의 효과, 통치의 목표는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인재라는 주체가 보편적이고 순수한 어떤 본질이 있다거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보학적 접근으로부터 “본질이 구축되는 데 이질성과 외부성이 개입”(심세광 2011, p. 91)하는 담론적 사건, 혹은 선택되고 배제된 텍스트의 배치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글로벌 인재 주체의 형성과 담론 전략

4.1.1 김영삼 정부 기간: 현지인, 현지화된 인재

세계화는 선언되었지만 글로벌 인재 기반의 통치 테크놀로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김영삼 정부 기간에는 미디어 역시 담론적 가상에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인력과 대비된 “우수한 현지인”, “현지화된 인재”는 새로운 글로벌 인재의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 1일 조선일보 기사는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국제인재 개발실을 신설하고 “외국인 채용 확대, 해외지사에 가능한 많은 현지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혼다자동차의 총 직원이 10만명인데 “이중 6만명이 외국인 현지직원”이라며 국내 인재상의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조선일보 1995년 1월 14일 기사에서는 선경그룹이 미국 뉴욕에 설립한 “IBM 전직임원을 비롯,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글로벌전략의 전진기지”라고 소개한다. 선경그룹은 1993년에 미국인 부사장을 현지법인 선경아메리카의 사장으로 임명했고 유공해운 일본지사장도 현지인으로 선임하면서 “국제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인종-지역에 관계없이 최고경영자로 기용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는 텍스트를 배치한다.

표 2. 김영삼 정부 기간: 글로벌 인재 담론

항목	특성
주체의 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현지인, 현지화된 인재 (국내 인력과 대비)
통치의 테크놀로지: 지식과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법 (내국인 vs 현지인) • 영토주의 이데올로기 (한국, 외국) • 글로벌 전략으로 현지인 채용, 철저한 현지화 강조
주체성: 능력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때 영어사용 • 현지 파견 시에 기본문장과 회화 단문 암기

미디어 담론의 테크놀로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영토의 경계선으로 구분하는 내국인과 현지인 (혹은 교포, 외국인) 이분법이 돋보인다. 앞서 언급한 선경그룹은 “세계화의 성패는 철저한 현지화” 혹은 “주요 임원은 모두 현지인”이라며 내국인과 현지인, 혹은 현지화된 인재의 분할과 대조 전략을 분명하게 사용한다. 글로벌 전략으로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철저한 현지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통치가 생산하는 글로벌 인재의 주체성은 구체적인 품행의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글로벌 인재에게 기대되는 지위, 능력, 속성은 거의 기술되지 않고 고작 회의를 영어로 하는 의무 정도가 부여되고 있다. “모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현지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국인끼리도 영어만 쓰”며, 필요하다면 “바이어들과 상담하는데 필요한 기본 문장 4백 개와 회화 단문 2천개를 암기”한다는 텍스트가 배치될 뿐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미디어 담론은 1990년대 상반기에 이념이 붕괴되고 세계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밖 “현지” “현지화” “현지인”을 강조한 외국의 인재에 관한 텍스트를 배치했다. 글로벌 주체는 안과 밖의 경계선으로 나누어 호명되기 시작했지만 그들 집단의 집단적 정체성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때라고 볼 수 있다.

4.1.2 김대중 정부 기간: 인재는 국부, 영어는 기본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글로벌 인재에 관한 기사는 여전히 9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화 담론은 정부, 기업, 대학 등을 모두 글로벌 인재의 의무와 권리 주체로 결속시켰고 무엇보다 인재는 “국부”(조선일보 2002년 3월 29일)라고 호명되며 담론적 지위가 격상되었다. 그들은 이제 기업의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외환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이끌 국가의 국부로 호명된 것이다.

표 3. 김대중 정부 기간: 글로벌 인재 담론

항목	특성
주체의 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는 국부 (경제와 인재론의 접합)
통치의 테크놀로지: 지식과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진술체계 ('탈한국') • 기업 담론의 주도성 (미래 인재 키우는 기업의 역할 강조. 산학협력 토대 구축)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화 추진 (SK: 영어공용화)
주체성: 능력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의 가치, 품성, 돈을 버는 능력이 나열 (벌세계적 매너,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 영어는 기본,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강조 • 영어회의에 능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선호

글로벌 인재 기반의 통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시기에 사용된 가장 돋보이는 담론적 진술체계는 '위기'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2001년 7월 30일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적표'가 초라하다"며 세계적 기업들이 아태지역 본부로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나 중국과 비교해서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한다. GE 인터내셔널 사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어가 안 통한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에서조차 '탈한국'의 조짐이 비밀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홍콩,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불편한 나라라고 기술하고 "영어 안 통하는 나라,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 2002년 3월 2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한국이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이 너무 낮"고 "비효율성이 심각"하고 "낭비가 너무 심하"며 "부패구조"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고효율 사회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위기'의 담론적 가상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 경쟁력 위기 담론은 글로벌 국가, 글로벌 인재, 글로벌 역량, 글로벌 마인드 등에 관한 담론과 접합되며 이 때 기업 주도성의 텍스트가 지배적으로 배치된다. 한 예로 조선일보는 2002년 3월 29일 최태원 SK회장 인터뷰 기사를 전달하면서 "일류 한국의 주역이 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단정적인 내용을 첫 문장에 배치한다. "일류 한국", "미래 인재", "기업 역할"은 서로 결속되면서 국익(국가경쟁력)을 돕는 미래 인재 선발과 양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만 한다고 여러 차례 전제된다. 실제로 기업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를 제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K그룹은 "영어공용화"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출근 뒤 "30분간은 공동 영어학습 시간"을 갖고, "영어회화나 회화에 자신감을 얻게 돼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어 자기발전의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 영어회의의 도입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도 자신감을 갖게 돼 자연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영어의 생활화, 체질화로 국제화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소개된다.

기업 담론의 주도성은 자연스럽게 교육개혁, 산학협력의 담론으로 연결된다. 2002년 3월

29일 조선일보 기사는 “기업들은 ‘대학이 불량품 인재를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지금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며 “현실을 잘 모르는 대학”을 변화시켜 한다고 전한다. “각자 원하는 것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SK 회장의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선발하고 양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이 뛰어난 사회, 혹은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지식을 정당화한다. 또한 조선일보 2003년 1월 1일 ‘산학협력의 ‘기술제국‘ 핀란드,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맞춤식 실천교육‘ 제목의 기사에 “국가경쟁력 프로젝트” “학생들도 기업과 교류하는 산학협동” “기업은 교육기관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상부상조 시스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산학이 서로 협력해야 가장 효율적”과 같은 텍스트를 배치시켰다.

이 시기에 생산된 글로벌 인재의 주체성은 인적자본의 속성을 상정하기 시작한다.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인간 내면에서 구현된 능력’은 “무형의 가치”이며 이제는 “사람의 능력이 돈을 버는 시대”임을 명시적으로 전제한다(조선일보 2002년 3월 29일). 지식, 능력, 역량과 같은 내면적 가치가 인적 자본으로 의미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강당에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집체식 교육”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가르쳐줄 수 없기에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지식기반 경제의 주체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된다. 경향신문 2001년 8월 9일에는 “세계 어느 지점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영어에 능숙하고 외국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규정되면서 “국제화 시대의 인재상”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세계 1인자라는 자부심,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나 자부심, 다른 나라, 다른 인종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고의 전환,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력, 범세계적 매너, 좋은 팀워크 등이 나열된다. 이 모든 품행은 “국제화 인재상”의 요건으로 미디어에서 새롭게 표상되기 시작된 것이며 이는 추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력 선발과 배치의 채용기준으로 사회적 실천력을 갖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영어가 기본”, “영어회화에 능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텍스트의 배치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영어능력과 글로벌 인재가 의미적으로 접합되기 시작한 때이다. 2002년 3월 29일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미래 인재”는 “비즈니스를 영어로 완결지어야 하고”, 경향신문 2002년 6월 22일에서는 “영어회화에 능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 당시 월드컵 4강에 오른 한국축구처럼 “영어를 우선 모든 회의에 적용,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한다. 앞서 언급된 기업의 영어공용화 제도화처럼 대학 역시 영어졸업인증제와 같은 테크놀로지로부터 규범과 명령의 체계를 작동시키기 시작한다(박수현, 신동일 2016, 2018). 동아일보 2002년 12월 4일에 서울 소재 대학이 “영어는 기본”인 “국제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소개되고, 2003년 1월 1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영어로만 수업하는 강좌”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대 기술자는 세계 고객을 상대로 제품 설명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업체의 주문”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텍스트를 배치한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외환금융위기와 지식기반경제의 경제적 주체를 등장시키면서 세계화 담론을 국부적 인재, 그리고 기업의 인적 자원과 접합시켰다. 통치적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업과 대학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글로벌 경쟁력의 이름으로 영어의 생활화, 체질화가 중요하다는 진술도 등장했다. 영어는 글로벌 언어이며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효율성, 경쟁, 수요의 신자유주의 원리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4.1.3 노무현 정부 기간: 유연하고 개방적인 스펙 관리 인재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등장한 글로벌 인재 기사는 54편으로 이전 정부 때보다 약 6배 정도 급증했다. 홍성현, 류용재(2013)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복지 영역에 정부의 역할을 확장한 노무현 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은 보수적 지배권력으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유도했고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담론적 구성체가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p. 35).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인재 담론은 세계화, 경제, 경쟁, 전쟁 등의 유의어, 하의어들과 빈번하게 결합된다. 글로벌 환경, 세계화는 국가 간 경쟁이고 전쟁이며,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이라고 반복적으로 재현되면서, 이제 ‘모든 인재는 글로벌 인재’로 등치될 수밖에 없는 주체화 과정을 거친다. 조선일보 2006년 9월 4일 기사에서 글로벌 인재는 이제 일류가 아니라 “Right People”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되는데 일류가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규모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부연할 수도 없는 “Right People” 글로벌 인재는 이제 누구에게도 호명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더욱 맹위를 떨치는 위기와 생존의 진술체제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전형적인 담론장치이다. 조선일보 2006년 10월 17일 독자칼럼은 “경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리션룽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 제일, 성장 우선의 철학이야말로 싱가포르 경제 재생의 중요한 동력”이듯이 우리나라 지도자도 “기업과 국민 사이에 ‘경제하려는 마음’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제 제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전제적 텍스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되기 때문에 국가, 기업, 대학, 혹은 학생, 부모, 개인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의미화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6일 기사 역시 “전 세계가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실”, “21세기 지시경쟁 시대”, “국제경쟁의 최선진” 배경이 반복적으로 묘사되면서 “글로벌 인재의 양성은 학교 간의 경쟁, 학생 간의 경쟁을 통해서” 심지어 “경쟁을 통해 교사 사회의 분위기도 바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인재는 경쟁을 통해 선발되고, 양성되고, 배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반복적으로 구성시키고 있다. 2007년 11월 1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국가 간 축구경기”, “원정 경기”,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을 놓고 한판의 유치 전쟁”, “외자 유치 전쟁에서 승리”,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절대적인 전력의 우위만은 아니라는 점을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이 역사를 통해 증명” 등의 문구에서 보듯이 승패의 게임, 전쟁의 은유로부터 “투자하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야 하는 이

유를 설명하고 있다.

표 4. 노무현 정부 기간: 글로벌 인재 담론

항목	특징
주체의 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재는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가 인재 담론의 핵심 언표로 기능) • 일류 대신 'Right People'이 될 인재 • 위기, 생존 진술체제의 지속적인 유포 • 지식기반경제라는 현실의 반복적 재현
통치의 테크놀로지: 지식과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주도성 담론의 자연화 전략 (국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어교육 경쟁력을 해결하면 기업이 잘 된다) • 학교의 글로벌 인재 양성 담론에 기업이 계속해서 개입 (경쟁 강조, 평준화 거부) • 특정 인물의 일상, 서사를 글로벌 인재의 의미화 전략으로 사용 • 스펙 관리, 자아의 통치가 명시적으로 등장: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주체성: 능력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마인드, 글로벌 두뇌, 글로벌 매너, 글로벌 문화 이해, 열정, 위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진취성, 전문성, 창의성, 영어능력의 가치 등이 조합. 유연하고 개방적인 신자유주의적 인재상이 본격적으로 재현 • 영어의 현장성, 수행성 강조: 영어면접, 영어회화, 영어발표 • 토종 인재의 재의미화

누구나 'Right People' 글로벌 인재로 호명되기 시작할 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혹은 정보화 시대라는 경제적 가상의 실재를 보다 선명하게 전경화시킨 것도 통치의 테크놀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글로벌 인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체화의 지식은 지식기반 경제 담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3년 9월 26일 '기업은 글로벌 인재를 원한다' 제목의 기사를 보면 "LG전자는 '디지털 리더'를 목표로 변화를 주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며 포스코는 "전문인, 디지털인, 세계인을 선호"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동아일보 2006년 9월 10일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찾는 인재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자이며 "디지털 시대에는 빠른 사고와 독창성이 경쟁력의 원천"이기에 "유능한 인재라면 국제적 대화가 가능한 언어능력과 정보화 수준... 빠르게 바뀌는 지구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인드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기반, 디지털 경제는 일종의 가상적 공간이었지만 미디어 텍스트로부터 이제 가시화된 대상으로 경제적 실재로 변모한 것이다.

글로벌 인재의 통치적 실천에서 기업 주도의 담론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일보 2004년 5월 6일 기사는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 로람쥐 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국 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과제는 영어교육"이라고 환기시킨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선일

보 5월 11일 CEO 칼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으며 “대학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6일 기사에서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해 “폐쇄적인 우리 교육 분야를 개방형 체제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각종 교육 규제 철폐, 자율과 경쟁 체제의 실현... 교사 경쟁체제” 등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입장이 전달된다. 동아일보 2006년 4월 10일 기사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의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중등학교를 소개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로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며 재계의 선도적 투자로부터 교육이 개혁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의 보다 다양한 단면은 다뤄지지 않고 경쟁과 세계화의 시대에 공교육의 효율성을 문제화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하고,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기업의 계몽적인 목소리만이 전달되고 있다.

기업 주도성 담론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 담론이 교육 담론과 접합되는 것도 글로벌 인재의 통치적 테크놀로지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의미화 전략이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17일 조선일보 독자칼럼을 통해 “싱가폴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우등생”인 이유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경제의 살 길을 찾아 과감하게 문을 열고 규제를 풀 결과”라고 설명하고 “싱가폴 교육부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상위 20%는 미국영국인만큼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계획 중인 것을 보도한다. 글로벌 경제의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인재 담론은 교육문제, 교육개혁, 교육해결 담론으로 빈번히 유도된다. 대학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로 표상된 대학입시 전형을 시작하고, 영어강의 확대, 외국인 교직원이나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기술된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 2003년 12월 3일에 “국제화 시대의 필수조건인 능숙한 영어구사를 위해 모든 전공과목을 영어로만 강의”하고 “많은 외국인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으며, “국제적 마인드를 현장에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한양대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2004년 11월 4일에는 국제산학협력, 국제화대학을 지향하면서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취업지원 체제를 갖춘다”는 호남대학교가 소개되었다. 경향신문 2006년 5월 27일 시론에서는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전문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글로벌 인재의 “양성”, “과견”, “개발”, “배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하고 있다.

통치의 기술적 측면에서 이전 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담론적 전략은 개인의 취업(준비), 직장생활을 일상, 사례, 사건으로 서사화 시킨 것이다. 글로벌 인재를 현지인, 혹은 국부로 집단의 정체성으로 거시화시킨 이전 시기와 달리 이 때부터는 신자유주의 권력의 장치들이 주체가 살아가는 미시적 일상생활과 자기경험의 공간으로 잠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디어 기사는 취업준비생이든 임직원이든 실명을 언급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 위기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어떤 계기로 지금은 변하고 달라졌다는 서사적 서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 2007년 2월 13일 ‘나의 입사 성공기’ 기사를 보면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KOTRA 서비스산업 유치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소개된다. 그의 “인턴 경험은 새로운 세상으로 그를 이끌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인생의 향로를 바꿨”고 대학원을 다니며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서 인턴”으로 다시 일하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작은 목소리와 불안한 시선을 고치려고 노력”한 사례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에 게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비는 있었”지만... “경제학 이론 공부와 신문 스크랩에서 익힌 기업사례가 도움”이 되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언어로 기술하고 있다: “그의 손에는 입사 전에 쓰던 손때 묻은 수첩 대신 회사 로고가 찍힌... 다이어리가 들려 있다... 새로운 목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와 같은 담론적 테크놀로지의 구축과 함께 글로벌 인재의 주체성은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경쟁 가득한 세계화 시대에 이제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하는 경쟁의 주체로서,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상정되기 시작한다. 부단히 자신을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글로벌 인재의 덕목은 예를 들면 경향신문 2004년 10월 6일 기사에 등장한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기사에 등장하는데 그는 “어학연수”도 가지 않고 “토익과 자격증에 목숨을 건 거대한 취업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인재상에 자신을 맞추며 취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자기주도적 개인으로 소개된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계획을 세우고 “취업시험 공부에 찌들어서는 경쟁력있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보다 능동적으로 교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밝은 표정, 웃는 인상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감을 키운다. 기업 채용담당자로부터 취업준비에 관한 조언을 정리한 조선일보 2003년 6월 30일 기사에서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학 1-2학년 때부터 매일 일상 속에서 느낀 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좋”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쓸 때...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처럼 글로벌 인재에게는 어떤 도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인성을 가져야 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것에 순응하면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서동진, 2009)이 부여된다. 조선일보 2006년 9월 4일 기사에서는 “명문대를 나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가 아니”며 “영어 이전에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글로벌 인재는 실력과 창의적 사고력, 글로벌 매너를 갖춘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강조하지만 “지식” “두뇌”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매너” “올바른 인성” “창의적 사고” “독특한 재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글로벌 인재의 능력이 기술될 때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혹은 자기계발의 자아적 속성이 선명하게 나열되곤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근면, 성실, 기본 등)와도 여전히 접합되어 있다. 조선일보 2006년 3월 27일 ‘현대중공업-글로벌인재로 키웁니다’ 기사를 보면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고 언급만 할 뿐 “영어회화와 영어작문... 근면과 성실 등 기본에 충실한 사람,... 적극적인 자세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여러 지면에 배

치되어 있다. 글로벌 인재는 이전 시기에 외국 현지에서 선발한 전문가나 국내에서 파견한 사원으로 구분한 적도 있었지만 조선일보 2007년 2월 2일 기사를 보면 “한국의 정서와 외국의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한국에 오래 거주해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외국의 문화에도 정통”한 다중적 언어/문화 정체성을 가진 인재에 지면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영어사용의 현장성이나 수행성은 이 시기에 재현된 글로벌 리더에게 보다 중요한 품행의 형식이 된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는 언술체계로부터 영어능력은 현장에서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되었다. 신자유주의 인적자본인 글로벌 인재는 (세계를) 이동하고, 자신을 경영하는 자기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만한 경험과 식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어구술 능력은 글로벌 인재의 내재적 속성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접합된다. 동아일보 2004년 9월 1일 기사에 “종이에 적힌 영어점수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고 조선일보 2003년 6월 30일 기사에서는 “토익 점수를 중시했는데 토익 점수가 높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관행이 문제화되고 같은 해 8월 6일에는 삼성전자가 내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 때 “처음으로 영어면접을 전면 실시”하며 “유능한 인재는 외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도한다. 1년 후 같은 신문 2004년 4월 13일 기사는 일부 계열사와 부서가 아니라 삼성의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모든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소식을 전한다. ‘영어로 말 못 하면 삼성맨 될 수 없다’ 제목의 경향신문 2006년 2월 4일 기사에서 “영어회화능력이 부진한 입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성적과 상관없이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다”는 텍스트를 배치한다. 삼성맨을 의미화시킬 때 토익이나 필기시험과는 탈접합시키고 글로벌 업무를 위한 영어회화능력과는 반복적으로 (재)접합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23일 기사에는 LG전자의 부회장 및 국내외 350여명의 임원들이 모인 회의를 “글로벌 임원회의”라고 이름 붙이고 부회장이 영어로 기조연설을 하고, 임원들은 분임 토의 후에 발표 자료를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한 풍경을 전한다.

제한적으로 지면에 배치된 것이긴 하지만 “영어는 제2모국어” 수준으로 언급되면서 글로벌 시대에는 중국어도 일본어도 필요하다는 텍스트도 배치되었다. 그러나 원어민, 외국인, 모국어, 제2모국어와 같은 단일언어주의 지식 체계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2005년 10월 31일 ‘해외 보낸다고 다 글로벌 인재 되나 한국인 정체성 잃을 수도 국내에서도 여건은 충분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기고자는 조기유학, 기러기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글로벌 인재로 당당히 성장한 아이들을 소개한다. “주말만 되면 미국인 가족의 또래 아이들과 어울렸”던 그들은 “영어능력은 원어민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지금은 변호사,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Korean identity)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한국인으로서는 글로벌 리더로 만들려는 것이지, 자녀들을 외국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점을 언급한다. “글로벌 SK는 우리가 책임집니다”로 시작하는 경향신문 2006년 1월 21일 기사는 중국에서 SK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중국인 새내기” 사원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

하”며 “한국에 관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고급 인재”로 소개되었다. 리관유 전싱가폴 총리 강연을 보도한 2006년 5월 20일 기사에서도 리 전총리는 학생들에게 “싱가폴이 영어를 제 2의 모국어로 택하고 있듯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필수”라고 말한 대목이 인용되었다. 조선일보 2006년 4월 21일 기사는 전경련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접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텍스트를 신는다. 조선일보 2007년 9월 29일 기사도 조기유학생을 해외파 혹은 유학파로 규정하고 국내파와 이항으로 대립시킨다. 그들이 국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글로벌 인재 활용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학파들이 “한국식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다 이직률이 높다”는 약점도 동시에 전한다. 이처럼 세계화 담론이 처음으로 형성될 때는 현지인, 유학파, 혹은 국내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인인 훌륭한 인재라고 주체화되었지만 여기서는 “토종”의 주체성이 재구성된다. 동아일보 2004년 9월 1일 기사에서 삼성네트워스에 입사한 신입사원 한명을 “토종”으로 소개하면서 “토종이란 해외 어학연수 한번 다녀오지 않고 외국 경험도 거의 없이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영어실력을 쌓은 사람을 일컫는 구직자들”로 소개한다. “토종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배짱”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칭송된다.

노무현 정부 기간의 미디어 담론은 기업과 교육 담론을 통해서 인재상의 끊임없는 교정과 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다 확장된 글로벌 인재 주체성이 기업의 핵심적 인재 담론으로 대두된 때이다. 특히 구직과 직장 생활을 일상, 사례, 사건과 같은 미시적인 서사로 전달함으로써 능력, 스펙 관리와 같은 자기 계발 담론을 글로벌 인재라는 주체성 담론 내부로 포용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인재의 언어능력이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다양한 언어 사용자가 만나는 다양한 접촉 지대(contact zone)의 접촉언어, 횡단적 언어실천(translingual practice), 도시언어(metrolingual), 생태적 언어환경(신동일 외 2017) 역시 텍스트로 배치될 법도 하지만 미디어는 여전히 모국어, 외국어, 원어민, 외국인, 유학파, 국내파, 한국인, 토종, 외국, 한국 등의 단일언어주의, 혹은 이항대립 분류체계로부터 글로벌 인재의 능력, 속성, 지향을 확립적으로 범주화시키고 있다.

4.1.4 이명박 정부 기간: 영어가 되는 국민, 기업가적 자아 주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글로벌 인재 기사가 모두 62건으로 다른 정부 기간과 비교해볼 때 가장 많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실용주의’,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국정지표로 설정했고 실제로도 신자유주의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시켰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의 (기업) 담론 형성에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글로벌 최우선” 혹은 “열린 글로벌화”와 같은 텍스트의 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간의 글로벌 인재 주체는 보다 개방적이면서 공세적인 의미를 지닌 텍스트들로부터 폭넓게 대상화된다. 관련 선행문헌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대학 자율화, 교원 평가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기업가적 경영 주체, 교육서비스

수요자, 자기통치적 학습자 주체성을 형성시켰고(홍성현, 류용재 2013) 대학입학사정제 정책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 담론을 형성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주체를 호명할 수 있었다(김은준 2012). 홍성현, 류용재(2013)가 지적한 것처럼 이 기간은 ‘개인 혹은 개별 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벗어나 국가, 국민의 경쟁력이라는 ‘보편적이고 집합적 수준의 경쟁력’이 강조된다.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통치의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담론에서도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호명되기 시작한다.

표 5. 이명박 정부 기간: 글로벌 인재 담론

항목	특징
주체의 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국민 • 다문화가정 구성원 • 기업의 간부사원, 중장년층 •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담론으로 전환 (‘글로벌 최우선’, ‘열린 글로벌화’) • 국가 경쟁력, 생존조건 담론으로부터 국가-국민 개조론 등장 (전체 국민, 국가를 대상의 글로벌 인재 담론이 확장. 보편적이고 집합적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조)
통치의 테크놀로지: 지식과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영어상용어 정책 등장 (소수 엘리트 양성이나 현지인 선발보다 87% 국민이 영어가 되는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를 참고모형으로 제안) • ‘기업-정부-공교육’의 위계적 협력관계 구축 • 대학의 책임과 권한위임 담론 • 다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 지식의 접합 (다문화가정구성원을 글로벌 인재로 포용) • 스펙보다는 글로벌 역량으로 평가 • 서사적 주체. 성공의 서사가 보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빈번히 강조
주체성: 능력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 영어가 아닌 다양한 혼용적 영어, 몸으로 느끼며 하는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언어사용능력(프랑스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이 강조 • 글로벌 인재와 ‘토종’ 영어달인의 의미적 접합 • 오픽(OPIc), 토익-스피킹 등 영어말하기능력/시험의 제도화 구축

조선일보 2008년 10월 13일 기사를 보면, 글로벌 헤드헌팅그룹 회장이 등장해 “인재 확보 전쟁”이라는 은유를 토대로 “글로벌 IT 기업 인재들의 보고였던 한국”과 “최근 언어 감각과 기술 수준으로 무장한 IT인재”를 쫓아내는 “중국과 인도”를 대조시킴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국가 (경쟁력) 단위로 가시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헤드헌팅 그룹의 회장”이라는 모종의 제도적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기대는 권위 확보(authorization)의 합법화 전략(Fairclough, 2012, p. 225)으로부터 전체 텍스트에 걸쳐 “인재 확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가 변해야 하는 식으로 글로벌 인재 담론을 재구성하고 있

다.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는 기업의 글로벌 인재 담론은 다문화주의와도 접합된다. 조선일보 2012년 6월 29일, 동아일보 2012년 11월 26일 기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LG그룹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LG 사랑의 다문화 학교’ 프로그램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2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글로벌 인재”로 표상된다. 어디서든 누구든 글로벌 인재로 등용시키고, 양성시키고, 새롭게 재평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역시 복수의 언어(문화)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글로벌 인재 담론에 자연스럽게 포용된 것이다. 다문화 구성원과 글로벌 인재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접합된 것은 시장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포용하는 유연하게 변모한 신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를 언어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유입시킨 언어능력 담론은 Canagarajah(2017)가 언급한 언어능력의 장식화, 피상적 보여주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의 글로벌 인재 담론이 구직과 성공을 희망하는 젊은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호명되었다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포함한 중장년층 역시 통치적 대상으로 포용된다. 2010년 9월 27일 동아일보는 롯데그룹이 전 계열사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 전원에게 외국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전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간부들이 외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제 가정을 담은 신동빈 부회장의 인사관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간부 사원 전원에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마련되기도 한다. 글로벌 인재 담론은 이제 청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 역시 스스로 새롭게 공부하고 경영하고 책임지는 기업가적 자아로 구성시킨 것이다. ‘공부하는 직장인’을 의미하는 2009년 5월 27일 동아일보의 “셀레브리티 열풍” 텍스트 유형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적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주체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짐작된다.

기업 뿐 아니라 대학의 담론으로부터도 글로벌 인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자신의 가치를 자본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표상된다. 2010년 12월 17일 동아일보에 “명품 인재” 또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대학 총장의 인터뷰 기사가 배치되고, 2012년 3월 6일 동아일보는 “학생이 영어봉사, 인성, 리더십 등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대학 총장의 인터뷰를 실는다. 2009년 2월 12일 조선일보에 등장한 서울디지털디자인전문학교의 학생 컨설팅제도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글로벌 인재는 이제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인재로 통용되기 시작한다. 개인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선택적으로 언급하면서 학생 및 청년층을 글로벌 인재의 주체로 초대하던 이전과 달리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특정 연령, 계층, 기업 등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년층, 다문화가정 청소년, 국민 전체로 통치 대상을 확장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배치된 미디어 텍스트는 신자유주의적 지식체계와 보다 긴밀하게 결속된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돕는” 영어 공교육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영어 “경쟁력”은 “생존 조건”이라는 위협적인 텍스트도 등장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경쟁력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이제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영어상용어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텍스트도 배치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2009년 3월 27일 동아일보는 “영어상용화를 세계화 동력으로”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를 지면에 실는다.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인구가 87%”에 달하는 네덜란드와 “아시아에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된 국가”로 소개하면서 기사 전체에 단정적인 진술문을 지배적으로 사용한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세계화 능력은 세계화 선진국가가 공통으로 보유한 영어 경쟁력”이며 이는 “인적자원의 세계화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다른 분야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단언한다. “영어 문제를 교육 정책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안”인 “영어상용화 정책”을 통해서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데 “세계화의 핵심은 인적자원의 세계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어상용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화, 인적자원, 영어 상용어의 가치를 등치시키고 있다. 글로벌 인재 담론은 영토로 구분된 현지인, 소수 엘리트, 특정 계층이나 기업의 단위를 벗어나서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처럼 전체 국민, 혹은 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통치 대상으로 초대하면서 그들이 숙지해야 할 특정 언어사용 환경, 혹은 언어문화를 경쟁력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의미화시킨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인재 담론은 정부를 채근하며 시장을 돕도록 유도하고, 대학은 기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력 담론에 협조해야 한다는 위계적 협력관계는 당연한 지식으로나 필요한 경영적 전략으로 정당화된다. 2009년 6월 23일 조선일보는 다국적 기업 P&G의 인사 담당 이사 목소리를 빌려 ‘한국 학생들, 영어와 실무지식 키워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는다. 여기서는 조선일보와 QS에서 제공하는 아시아대학 평가 자료로부터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과 한국의 졸업생 평판도 순위가 비교되는데 대학, 기업, 국가의 경쟁력 담론이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 “대학은 기업의 글로벌 인재 담론에 의한 호명으로부터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변모하는데, 2011년 1월 17일 조선일보는 성균관대학교의 신임 총장 인터뷰 기사를 전달하면서, “학문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로 미래를 규정하고, “대학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그 인재들을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돼야 한다”며 “앞으로 강의 절반 이상을 윈어로 하며, 학생들이 일정 수준만 되면 4년 중 1학기는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7(국내)+1(해외)학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다. 기업의 글로벌 인재 담론으로부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인재의 양성과 공급 책임이 대학으로 위임되면서 대학의 “외국어학습 환경”이 영어카페, 교환학생제도, 어학연수, 영어졸업인증제 등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관련 기사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인재들은 수기 등의 서사적 주체로 자주 등장하면서 성공신화의 담론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10월 8일 동아일보는 섬유 수출기업의 해외 영업팀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입사 수기를 담은 기사를 전하면서, 인사 담당자의 말을 통해 기업은 이들과 같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열정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2010년 11월 11일 동아일보도 인턴 사원을 거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신입사원들의 입사 수기를 기사의 형태로 전한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한 일종의 “신화 만들기 (mythopoesis)”(Fairclough 2012, p. 225)식 합법화전략이 글로벌 인재의 주체성 형성에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해외여행 및 연수”, “전공”, “학점 수준” 등과 같은 “스펙”보다 “본인의 관심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남다른 성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와 같은 “역량”으로 글로벌 인재가 평가된다고 2011년 5월 16일 조선일보가 기술한다. 그리고 헤드헌터의 목소리를 빌려 기업이 찾는 “미래 인재”는 “창의력과 도전정신,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모든 회사에서 인재상을 말할 때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고 소개한다.

이와 같은 통치 실천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다. 앞서 국민 전체에게 영어사용의 필요를 부여한 기업의 영어 담론은 대학의 생존 담론에서도 동일한 지향점이 발견된다. 2009년 3월 31일 조선일보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사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국내 최초로 “전 과목 영어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2009년 2월 12일 조선일보는 서울디지털디자인전문학교를 소개하면서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의 기술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어실력까지 있어야 한다”는 대학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다. 여기서 “글로벌 시대에 영어 구사능력”은 “필수조건”이라기보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존조건”이라고 설명된다. 국민 전체를 통치의 대상으로 호명한 글로벌 인재 담론은 이제 기업이든 대학이든 어디서나 영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글로벌 언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통치적 기술이 구축되는 중에 다소 모순적인 논거가 지면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영어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상용어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중언어(예: 프랑스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사용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픽, 토익-스피킹과 같은 표준화된 영어시험을 인재의 영어능력 평가 및 관리 체계로 제도화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가 아닌 다양한 영어가 혼용”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몸으로 느끼며 하는 의사소통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08년 4월 17일 동아일보는 글로벌 현장에서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다녀오지 않고 국내에서만 교육 받은 ‘토종 영어달인’들이 “두독한 배짱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영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기사에서 소개된 학습방법(10장이 넘는 영문 원고를 달달 외우거나, 기자재를 활용하거나, 영문 신문이나 영상물을 참조하거나, 영문 서적을 읽고, 녹음하고 발음 교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원어민 영어, 단일언어사용 역량이 강조되고 있고, 혼자서 분투하는

기업가를 연상하게 되는 학습자 자아가 자주 그려지고 있다. 이 기간의 글로벌 인재 언어능력은 이전보다 다양한 속성(예: 혼용적 능력, 체험 등)의 언표들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언어의 속성을 개별 주체가 스스로 분발하며 획득해야 하며, 표준화된 시험으로 성과와 경쟁을 관리한다는 텍스트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글로벌 인재의 담론은 전략적으로 차이와 다양성의 텍스트를 출현시키긴 했지만 언어의 속성을 여전히 기술, 상품, 서비스로 인식할 뿐이며 오피이든 토익이든 단순한 평가체계로 인재의 능력, 속성, 지향을 환원시키는 합리주의, 혹은 행정편의적 지식 전통과 결속되어 있다.

4.1.5 박근혜 정부 기간: 원어민 영어나 국가주의와 탈접합된 초국가적 인재

박근혜 정부 기간에 배치된 글로벌 인재 기사는 모두 22건으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통치가 행사되는 공간은 국가에서 초국가, 혹은 글로벌 도시나 다국적-다중언어 기업으로 새롭게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집단주체가 호명되기 시작한다. 글로벌 인재 담론은 앞선 정부 기간에 호명된 전체 국민-국가에서 글로벌 도시 시민, 또는 직원 다수가 복수의 국적과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의 구성원으로 대상화하기 시작한다. 조선일보 2013년 3월 16일 기사는 “최적의 비즈니스 공간”이며 “전 세계인이 섞여 있는 인종 전시장”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글로벌 광고회사”를 소개한다. 95명의 직원이 15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19개의 국적을 보유하며 일하고 있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광고를 만드는데 최적의 환경”이라고 소개된다. 또한 “암스테르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며 전체 인구 8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180개 국적의 외국인이며 시민 80%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90%는 2개 언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도시, 글로벌 시민, 그리고 그곳의 글로벌 기업(구성원)을 긍정적으로 의미화시킨다. 국민-민족-국가의 관행적인 통치실천으로부터 글로벌 인재나 영어 경쟁력의 논거를 구축하지 않고 다수에게 낯설기도 한 도시-시민의 주체성으로부터 글로벌 인재의 담론장을 유도한 것이다. “혁신 도시” “창업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및 정부는 “과격적인 업호 사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위계성도 등장하지만 시장-친화적인 초국가적 도시를 구축하고 코스모폴리탄 시민이 되기 위해 국가주의를 탈피하고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텍스트가 배치된 것이다.

표 6. 박근혜 정부 기간: 글로벌 인재 담론

항목	특성
주체의 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도시 시민 • 다중 국적/언어를 사용하는 기업의 구성원 • 초국가적 국가 구성원
통치의 테크놀로지“ 지식과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도시/기업의 가치화 전략 (암스테르담 도시, 시민, 기업이 소개) • 국가주의를 탈피하고 초국가주의 지식체계 제시 • 다문화주의와 계속적인 접합 (‘세계가 보인다’) • ‘시장-국가’ 위계를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지식의 강화 (시장을 엄호사격하는 국가의 역할 강조)
주체성: 능력과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 추상화되는 21세기 인재상의 지향 (인간성의 이해, 세계에 대한 공동체의식, 지구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융합적 사고능력) • 대기업은 탈스펙의 품행 강조 (취업준비생들은 여전히 스펙 기반의 주체성에 의미 부여) • 원어민영어와는 탈접합, 다문화주의 기반의 표상을 긍정적으로 의미화 • 영어회화능력, 표준화시험성적은 여전히 강조

조선일보 2013년 7월 24일 기사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국제화가 덜 돼 있다는 일본”보다도 못한 “초국적화 지수”로부터 국내 해외 파견 근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2016년 6월 15일 조선일보 기사는 “말로만 글로벌 인재” 또는 “알맹이가 부족한” 국내 “글로벌 대학”의 문제점을 아시아 대학평가의 “졸업생 평판도”와 같은 지수로부터 찾았다. 또한 글로벌 인재의 기업 담론은 “융합형 글로벌 인재” 담론으로 유연하게 변형되었는데, 2015년 12월 23일 경향신문은 경희대학교 국제학과를 소개하면서 “융합형 글로벌 인재”라는 언표를 사용한다. 기존의 글로벌 인재와 달리 “인간성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공동체 의식, 지구적 난제에 대한 융합형 사고 능력과 실제적 해결 능력을 갖추고 한국 및 지구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보다 추상화된 인재 속성이 소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 22일 경향신문은 최근 대기업 신입사원의 채용 관행을 전하면서, 과거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어학연수 등 외국인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정도가 차별적 요소”였다면, 이제 “역사나 철학을 포함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교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글로벌 인재의 속성이나 지향은 갈수록 지나치게 다면적이면서도 추상적으로 상징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 담론이 암스테르담과 같은 글로벌 도시, 글로벌 시민,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 등과 접합되고, 글로벌 인재의 덕목들 역시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되면서, 도시공간과 같은 언어문화구성물이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로 인식되는 표상도 등장한다. 글로벌 인재는 이제 원어민의 영어를 벗어나서 암스테르담의 시민처럼, 혹은 그 곳의 기업 구성원처럼, 다양한 영어들, 횡단적인 언어 사용, 비언어적 자원의 가치를 수용하는 언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영어-회화-시험-성적은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하고 양성하

는데 중요한 언표로 여전히 지면에 빈번하게 배치되고 있었다. 동아일보 2013년 4월 8일 기사에는 취업준비생들이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말 그럴까요?”라고 질문하면서 입사 설명회에서 강조되는 “무스펙, 탈스펙 원칙”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전히 “믿을 것은 토익 점수, 자격증 수”라는 내용이 실린다. 앞서 제시한 대기업의 거창한 글로벌 인재상, 횡단적 언어사용의 역량 언표와 달리 취업준비생들은 시험성과와 같은 스펙 기반으로 글로벌 주체성에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 시장에서 영어회화능력, 표준화된 영어시험성적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기사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2015년 3월 3일 조선일보는 “신입사원들의 영어 구사력이 기대에 밀든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구직을 할 때 영어회화능력, 면접, 영어시험의 비중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한다. 20여년 전의 글로벌 인재 담론에서도 빈번히 등장한 “현장 회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간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만났을 때와 같은 다양한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점수화”하는 관행도 무시할 수 없다. 2015년 5월 7일 조선일보는 “기업 영어 면접, 유려함보다는 업무 수행 여부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영어 면접을 강화한다”는 사내 방침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지식체계는 유연성, 다양성을 포획하는 담론적 전략을 수용하면서도 수량화, 범주화 정보를 축적하는 평가적 사회구조(신동일 2018)를 여전히 선호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의 원리와 평가적 사회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시대적 풍조 아래 영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시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인재라는 새로운 주체성 형성에 개입한 미디어의 담론적 실천을 푸코의 통치성과 주체성 개념, Dean(2010)의 통치성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분석한 것이다. 국내 신문에 배치된 관련 텍스트를 수집하여 호명된 주체, 통치의 테크놀로지, 주체성의 속성과 지향으로부터 구분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글로벌 인재 담론의 역사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의 통치적 테크놀로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김영삼 정부 기간에는 인재 담론은 내국인과 구분된 ‘현지인’, ‘현지화’ 언표에 머물고 있었다. 세계화의 의미화 작업이 기업 혹은 경제 담론과 명시적으로 접합된 것은 김대중 정부 기간부터였다. 당시 위기의 진술체제가 넘칠 때 ‘영어가 기본’인 인재는 ‘국부’라는 인재론이 등장했고, 무형의 가치, 품성, 사람의 능력이 돈을 버는 시대임이 조명되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담론은 노무현 정부 기간부터 통치의 대상을 유연하게 바꾸고 확장하며 시장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행위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시화시켰다. 이 당시의 글로벌 인재는 모든 인재 담론의 핵심적 언표로 등장했으며 대학의 인재 양성에 도

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스펙을 관리하고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자아의 통치가 시작되고 디지털 마인드, 글로벌 매너, 글로벌 문화 이해, 진취성, 개방성, 전문성 등을 조합한 유연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인재상이 신문매체에 빈번히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도 학생이나 직장인이 자신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관리자, 혹은 기업가적 자아로 계발하는 모습이 신문매체를 통해 묘사되었다. 성공의 서사가 넘쳤고 보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글로벌 인재는 서사적 주체로 호명되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글로벌 도시, 글로벌 시민 혹은 초국가주의 담론으로 전환되기도 했고 다문화주의와 글로벌 담론이 새롭게 접합되었다. “인간성의 이해, 세계에 대한 공동체 의식, 지구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갈수록 복잡하고 추상적인 인재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지식체제와 담론의 기술은 글로벌 인재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 일상 속에서 분발하는 품행의 형식을 유도했고 다양한 덕목으로부터 생성된 주체성은 계속적으로 인간성 존중, 평화 공헌 등과 같은 낭만화된 수사로부터 수정되고 변형되었다.

제한된 매체로부터 수집한 텍스트 분석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글로벌 인재의 집단주체를 새롭게 호명하고 언어능력을 포함한 주체성의 의미화 작업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통치의 대상만 계보적으로 추적해보더라도 주체의 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연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글로벌 인재의 주체로 현지인이 호명되었지만 이후로 국부가 되는 인재, 일류가 아닌 Right People, 토종, 전체 국민, 다문화가정 구성원, 글로벌 도시 시민, 초국가적 국가 구성원으로 호명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통치의 테크놀로지 역시 김영삼-김대중 정부 기간에 이분법(내국인-현지인, 국내-현지화, 한국-탈한국), 위기론, 국부론 등이 등장했지만, 노무현 정부 기간부터 경계와 속성이 모호한 신자유주의 담론 및 지식의 진술체계가 대거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적자본 인재를 요구했고, 시장-국가-학교, 국민-시민, 국가-도시는 각기 다르게 등장하고 상보적으로 결합되었지만 시장-우위의 위계성만은 양보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신을 경영하는 자아의 통치 텍스트 역시 통치의 공간을 달리하며, 일상과 서사의 언술체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배치되었다. 글로벌 인재는 처음에는 국가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타자로부터 간섭받고 통치되는 방식으로 표상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자아의 테크놀로지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고 부연되었다.

영어능력을 포함한 인적자본으로서의 능력과 지향점 역시 새로운 요인을 계속적으로 포용했지만 시장의 질서, 기업 주도적 담론의 틀 안에서만 재의미화되고 있었다. Canagarajah(2017)가 지적한 것처럼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바라보는 전제, 영어사용자 혹은 학습자를 기업가적 자아로 결속시키는 전략, 언어문화나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공간을 상품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은 신자유주의 기반의 언어/교육 담론에 자주 등장한다. 다양한 영어들, 영어 이외의 언어자원, 다문화주의 등도 늘 신자유주의의 담론 질서 안에서만 재의미화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으로부터 능력, 역량, 태도, 지향성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해도 평가방식만은 여전히 표준적인 절차와 내용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음

도 주목해야 한다. 영어회화능력을 검증하는 면접시험, 오픽과 토익-스피킹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등을 제도화하고 관행적으로 인재 선발에 활용한다는 보도 텍스트는 여전히 맥도날드화화된 언어기술(Block 2002)을 선호하며, 합리주의 모형으로 혹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글로벌 인재의 품행을 통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언어)능력을 상품적 속성으로 의미화시킬 순 있지만, 성과의 관리는 표준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쟁, 효율성, 공리, 수요-공급 가치 중심의 신자유주의 통치기술의 특성(Giannone 2016, Raaper 2016)으로 이해된다. 결국 경제적 편익, 수요와 공급, 경쟁, 효율성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재의 영어능력, 영어사용, 시험준비와 학습 속성은 언어시장의 담론 질서 안에서 유연하게 변용될 뿐이었다.

무엇보다 글로벌 인재상은 갈수록 외연이 넓어지고 다양한 단면을 포용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생은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글로벌 인재 담론은 기업이 요청하고,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이 화답하며, 오랜 동안 유연하게 구축된 시장화된 프레임이고 이제 누구나 그만한 인재가 되기를 스스로에게 혹은 타자에게 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디지털 마인드, 글로벌 두뇌,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의식, 지구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야 하는 인성을 학습하기란, 신문매체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된 개인 사례처럼 결코 쉽지 않으며 다수의 학생 청년들은 소외와 무력감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의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인재의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게 하며 성공도 실패도 개인의 책임으로 이전시키곤 하기에(서동진 2009), 사회구성원 다수가 글로벌 인재의 담론장에서 체감할 무력감은 어느 누구도 조직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논점으로부터 미디어에서 재현된 글로벌 인재의 주체성을 탐색했다. 그러나 통치성을 구성시키는 다양한 사물(담론, 제도, 법, 행정적 조치, 학술적 언술, 도덕적 명제)의 배치를 보다 이질적인 매체나 포괄적인 텍스트 수집으로부터 추론하지는 못했다. 신문 텍스트의 분석만으로는 타자의 지배와 자아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으로 유추될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다양한 매체 위의 재현을, 정책문서든, 광고든, TV 뉴스든, 텍스트간 상호결속성(intertextuality)을 주목하면서 후속연구가 기획된다면, 글로벌 인재에 관한 통치성 연구는 그동안 상식으로 전제된 글로벌 인재의 담론과 해당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관행을 문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이고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수용된 글로벌 인재의 덕목은 본 연구의 결과처럼 개별 정부의 기간으로만 구분해도 담론의 자명성을 문제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인재에 관한 규범과 명령의 진리체계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의, 특정 권력관계망으로부터, 특정 지식과 사회적 관행에 의존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은 지식-권력-담론을 앞으로도 새롭게 조합시켜 정부와 대학 행정가, 교수자, 학생, 직장인들로 하여금 글로벌 인재의 실천을 유연하게 유도시킬 것이다. 저항이나 대안적 인재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학계가 이에 관한 비판적 연구

물을 보다 역동적으로 축적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인재가 신자유주의 통치 질서로부터 자기통제를 실행하는 예측화된 주체라는 냉소적 논점을 남기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추후 연구로 자기미학에 관한 푸코의 후기 저술을 적용해본다면 자기해방과 창조의 윤리로서 예측화가 아닌 주체화의 논점(심세광 2011)으로부터 글로벌 인재를 다시금 사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푸코의 저항적인 자기변형의 실천이 여전히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일 뿐 사회적일 수 없다는 지적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자기통제의 양식이 무엇인지, 도대체 다수에게 그것이 가능한 양식인지에 관한 의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푸코 방식의 실존적 미학, 윤리적 대항 품행으로부터 시장의 명령이나 바깥 권력의 지배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통치의 가능성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거나, 혹은 Fairclough(2017)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주체에 대한 푸코의 주장은 과도하게 구조주의의 풍미를 지닐 위험이 있고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의 속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주체성은 역동적으로 재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추후 연구에는 담론과 주체의 관계성이 보다 변증법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웅(Kang, J.). 2014. 푸코의 권력과 주체: 통치성과 윤리적 주체(Foucault's power and subject: Governmentality and ethical subject). 《사회와 역사》(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103, 401-423.
- 김가현·신동일(Kim, K. and D. Shin). 2016. 글로벌 인재와 영어 능력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global talents and their English competence). 《사회언어학》(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3, 249-280.
- 김상운(Kim, S.). (역).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년』(M. Foucault의 *Il faut defendre la societe: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5-1976*). 서울: 난장.
- 김용(Kim, Y.). (역). 201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 시민성, 민주주의』(M. Olssen, J. Codd, A. O'Neill의 *Education Policy: Globalization, Citizenship and Democracy*). 서울: 학이시습.
- 김은준(Kim, E.-J.). 2012. 『신자유주의 시대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 한국의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Educational Discourses and Formation of Subjectivit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 Case Study of the Admission Officer Policy in Korea).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종국(Kim, J.-K.). (역). 2003.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G. Ritzer의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서울: 시유시.
- 김주환(Kim, J.). 2017. 『포획된 저항: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Resistance Captured: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Hegemony, and Politics of Social Enterprise*). 서울: 이매진.
- 김지홍(Kim, J.-H.). (역). 2012. 『담화분석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분석』 (N. Fairclough의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서울: 경진.
- 김지홍(Kim, J.-H.). (역). 2017. 『담화와 사회변화』 (N. Fairclough의 *Discourse & Social Change*). 서울: 경진.
- 노형일·양은경(Roh, H. and E. Yang). 2017. 비폭력 저항 주체의 형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통치분석(The formation of nonviolent subjects: Analysing regimes of government on 2016 candlelight protest against President Park). 《한국방송학보》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3, 5-41.
- 도승연(Dho, S.-Y.). 2014.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바라본 신빈곤 속의 여성의 삶: 21세기 한국 농업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관하여(The lives of women in 'new poverty' from the Foucault's perspective on governmentality: on the case of the migrant women-workers in South Korean agriculture business in 21th century.). 《한국여성철학》 (*Korean Feminist Philosophy*) 22, 5-33.
- 도승연(Dho, S.-Y.). 2015.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본 로컬 푸드의 한계와 한국적 적용의 현실(The limitation of local food in terms of Foucault's "Governmentality" and its adaptation in Korean reality). 《한민족문화연구》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52, 429-457.
- 박소연·송영수(Park, S. and Y. Song). 2008. 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HDR)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분석: 기업과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The study for global business competency model to develop the talent in the large enterprises in Korea). 《인력개발연구》 (*The Korean Journa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10-3, 65-85.
- 박수현·신동일(Park, S. and D. Shin). 2016. 영어능력 인증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국내 대학의 영어졸업인증제도를 중심으로(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Korean newspaper reportage of Korean universities' graduation accreditation system for English proficiency certification). 《응용언어학》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2-4, 175-208.
- 박수현·신동일(Park, S. and D. Shin). 2018. 영어졸업인증제도의 역사성에 대한 비판적

- 담론분석: 푸코의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Understanding the historical flow of media discourse on the graduation accreditation system for an English proficiency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Michel Foucault's governmentality). 《응용언어학》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4-1, 29-58.
- 박혜경(Park, H.). 2010.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Subjectification of neo-liberal housewife: Discourse analysis of daily newspaper articles). 《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6-2, 127-158.
- 서덕희(Seo, D.).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Classroom Collapse" reports: Focusing on the Chosun Ilbo's). 《교육인류학 연구》 (*Anthropology of Education*) 6-2, 55-89.
- 서덕희(Seo, D.). 2006. '교실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홈스쿨링에 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The formation of neo-liberal discourse on education after "Classroom Collapse", and resistance to it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homeschooling reports in South Korea). 《교육사회학 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1, 77-105.
- 서동진(Seo, D.).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The Will of Freedom and Self-development*) 서울: 돌베개.
- 서동진(Seo, D.). 2014.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그 음산한 배면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rear gloomy) 《문화과학》 (*Culture Science*) 77, 21-34.
- 신동일(Shin, D.). 2013. 언어교육의 후기-현대성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맥커뮤니케이션, 자아정체성, 그리고 생태주의 관점에서부터(Understanding the late-modernity of language learning: from the views of McCommunication, self-identities, and ecology). 《영어영문학》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9-1, 99-121.
- 신동일(Shin, D.). 2018. 영어시험에 관한 담론 정치의 역사성 분석: 신자유주의와 평가국가의 논점에서부터(Analyzing historical flow of discourse politics on English language testing in Korea: An overview from the neoliberalism and evaluate state) 《응용언어학》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4-3, 출간 예정 원고.
- 신동일·박수현·김가현·조은혜·심우진(Shin, D., S. Park, Kim, K. Kim, E. Cho and W. Shim). 2017. 『접촉의 언어학: 다중언어사회의 교육과 정책』 (*Study of Language Contact: Language Education and Policies in Multilingual Society*)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세광(Shim, S.). 2011. 푸코에게 주체란 무엇인가? 실천이론으로서 푸코의 주체이론의 변모 (What is Subject to Foucault?) 《문화과학》 (*Culture Science*) 65, 89-125.
- 심세광·전혜리·조성은(Shim, S., H. Song and J. Choi). (공역). 2011. 『안전, 영토, 인

- 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년~78년』 (M. Foucault의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서울: 난장.
- 심세광·전혜리·조성은(Shim, S., H. Song and J. Choi). (공역). 2012. 『생명관리정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M. Foucault의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서울: 난장.
- 오생근(Oh, S.-K.). (역). 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M. Foucault의 *Surveiller et punir*). 서울: 난장.
- 이정우(Lee, J.-W.). (역). 1992. 『지식의 고고학』 (M. Foucault의 *L'archéologie du savoir*). 서울: 민음사.
- 이종구·천만봉(Lee, J.-G. and M.-B. Cheon). 2013. 한국 대기업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
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1980년대 이후 삼성, 현대, LG, SK를 중심
으로(The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n right people and characteristics by the period of Korea
major enterprise: Focus on Samsung · Hyundai · LG · SK after the 1980s). 《경
영사학》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28-2, 49-78.
- 하연섭(Ha, Y.-S.). 2003. 정책아이디어와 제도 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Policy idea and institutional change: Translating neoliberalism in
Korea).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44-4, 1-27.
- 홍성민(Hong, S.-M.). (역). 1991.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M. Foucault의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서울: 나
남.
- 홍성현·류용재(Hong, S.-H. and W. Ryoo). 2013.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글로벌 인재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Becoming a global talent in the era of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global talent).
《커뮤니케이션 이론》 (*Communication Theories*) 9-4, 4-57.
- Bernstein, K. A., E. A. Hellmich, N. Katznelson, J. Shin, and K. Vinall. 2015. Critical
perspectives on neoliberalism in second/foreign language education. *L2 Journal*
7(3), 3-14.
- Block, D. 2002. McCommunication: A problem in the frame of SLA. In D. Block and D.
Cameron, eds., *Globalization and Language Teaching*, 117-133. London, UK:
Routledge. 117-133.
- Cameron, D. 2000. *Good to Talk? Living and Working in a Communication Culture*.
London: Sage.
- Canagarajah, S. 2017. *Translingual Practics and Neoliberal Policies: Attitudes and
Strategies of African Skilled Migrants in Anglophone Workplaces*. Berlin: Springer.

- Dean, M. 2010.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2nd ed.). London: Sage.
- Gaap, R. 2016. Academic perceptions of higher education assessment processes in neoliberal academia.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57-2, 175-190.
- Giannone, D. 2016. Neoliberalization by evaluation: Explaining the making of neoliberal evaluative state. *PACO* 9-2, 495-516.
- Jankowski, N. and S. Provezis. 2014. Neoliberal ideologies, governmentality and the academy: An examination of accountability through assessment and transparency.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6-5, 475-487.
- O'Neill, A-M. 2016. Assessment-based curriculum: Globalising and enterprising culture, human capital and teacher-technicians in Aotearoa New Zealand.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31-5, 598-621.
- Park, J. 2010. Naturalization of competence and the neoliberal subject: Success stories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in the Korea conservative press. *Journal of Linguistics Anthropology* 20-1, 22-38.
- Park, J. 2011. The promise of English: Linguistic capital and the neoliberal worker in the South Korean job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4-4, 443-455.
- Piller, I. and J. Cho. 2013. Neoliberalism as language policy. *Language in Society* 42-1, 23-44.
- Raaper, R. 2016. Academic perceptions of higher education assessment processes in neoliberal academia.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57-2, 175-190.
- Rose, N. 1989.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Free Association Books.
- Rose, N. 1998. *Inventing Our 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H. and J. S. Park. 2016. Researching language and neoliberalism.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lingual Development* 37-5, 443-452.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성인(Tertiary)

신동일

글로벌 인재와 영어능력에 관한 담론적
실천과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이해

신동일
교수,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shin@cau.ac.kr

논문 접수(Received): 2018년 5월 10일
논문 수정(Revised): 2018년 9월 10일
게재 결정(Accepted): 2018년 9월 18일